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시편 36:1-12)

복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기쁨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에덴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줄기는 축복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9절).

흐르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과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의인이 먼저 설명 되고 다음에 악인이 나오는 반면 시편 36편은 악인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의인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소원을 이룰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기쁨을 말합니다.

1. 악인의 길을 버려야

죄를 품에 안고 죄 가운데 살면서 갖은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오고, 죄인의 길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주신 통찰력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롬 1:18),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다"(롬 1:24),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사람"(롬 1:26). 죄는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없게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또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옹호합니다(롬 1:32).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1절).

모든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그의 책상 앞에 '코람 데오(하나님 면전에서)'라는 표어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세상이 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길로 가는 길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 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1절).
- ② 자기중심적이 되어 죄를 자랑해도 폭로되지 않는다고 자만한다(2절).
- ③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지혜와 선행을 떠난다(3절).
- ④ 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4절).
- ⑤ 악을 좋아한다(4절).

죄의 특징은 'just a little bit(조금만 더)'입니다. 죄는 조금만, 한 번 만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합니다. 죄를 찾아내거나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은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지혜를 말하거나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판단으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소원을 이룰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별력을 갖습니다. 악한 자는 영적 이상자가 되어 진리를 오투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에게 아첨하며 죄를 행하고도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악인은 선을 그치고 악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이들의 양심은 굳어졌고 실증내지 않고, 염려 없이 악을 행하는 일에 용감해집니다. 이런 죄를 안고 어떻게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기쁨은 악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려면 이 같은 악인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앙망해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악인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시인은 악인으로 인해 탄식하다가 갑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그 위안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함으로, 즉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1) 주의 인자하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5절).

주의 인자하심은 5, 7, 10절에 나타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케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합니다.

(2) 주의 진실하심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5절).

하나님은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십니다. 그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식언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공창보다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은 무한합니다.

(3) 주의 공의로우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의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 18:25).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빌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6절).

하나님의 산들이란 호렘산과 같은 큰 산을 말합니다. 큰 산은 작은 바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같이 높아도 그의 의를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앙망하며 기쁨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오늘 2007년 찬양대원 임명

-음악감독직·지휘자순환제 실시-

우리교회는 지난주일 섬김위원 전원을 임명하는데 이어 오늘 주일예배 시간과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위원회 소속 각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당회는 그동안 잠재해왔던 음악감독직제를 다시 회복하고 이영조 집사를 음악감독으로 임명하며, 지휘자 순환제도에 따라 가브리엘-김정희, 할렐루야-고성진, 임마누엘-류종기, 그레이스 핸드벨-오선혜 집사를 각각 임명한다.

오늘 찬양대원으로 임명받는 섬김위원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세움을 받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기회로 삼도록 기도한다.

각 찬양대원 명단은 오늘 주보와 함께 삽지로 배포된다.

수요예배 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

대와 시온 찬양대는 13일(수) 수요예배 시간에 임명하고 매월 첫 수요일 1부 예배 시간에 영광 돌리는 은빛 찬양대는 지난 6일(수) 임명 하였다.

<찬양대원 임명 순서>

- 1부 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 2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 3부 예배: 임마누엘찬양대, 아멘관현악단, 필그림중창단
- 찬양예배: 베들레헴 찬양대, 갈렙 찬양대, 글로리아 중창단, 예비지휘자, 예비오르가니스트, 예비피아니스트, 찬양대원 양성반, 새벽기도 피아니스트, 금요철야 피아니스트
- 영어예배: 예루살렘 찬양대

각 지회 총회 결과 발표

2007년 한 해 동안 각 지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각 지회가 하나 되어 충성하며 덕을 세워 많은 열매 섬김위원들이 선출되어 오늘 순례자에 발표되었다. 맺도록 기도한다.

구분	지도	회장	부회장
빌립	장석남	김영희	송영준
안드레	이규정	박명철	김삼연
베드로	이태훈	박광식	송인수
바울	윤영국	안홍희	원용규
엘리아	한상은	최규초	홍창배
모세	정수길	오정수	유을상
아브라함	서명철	김태기	정병무
도르가	장석남	김미선	송미자
루디아	이규정	최종희	박수옥
보보	이태훈	박정임	이미송
마리아	윤영국	허숙	위성남
에스터	한상은	남태순	이영숙
한나	정수길	김숙자	전원순
사라	서명철	이규희	정연택

<직능별선교회>

-의료선교회-

- 회장 하인선 집사 · 부회장 김한성 집사

-이미용선교회-

- 회장 이자혁 권사 · 부회장 김필임 집사

<중등부>

- 회장: 김소연 · 부회장: 안세일, 이ური

<고등부>

- 회장: 서한상 · 부회장: 김안국

<대학부>

- 회장: 하상영 · 부회장: 오주명

2007년 순결서약 접수 계속

-12월24일(주일) 마감-

2007년 1월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될 예정인 2007년 순결서약식 접수가 계속된다.

순결서약식은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대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갖는 것으로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않는 13세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 신청을 받는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3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접수는 교회학교와 사무국에서 12월24일(주일)까지 받는다.

연말연시 교회 주요행사

- 12월 10일(주일) 찬양대원 임명
- 12월 13일(수) 호산나, 시온 찬양대 임명
- 12월 17일(주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
성경 통독자 시상
성탄축하 찬양예배(임마누엘)
- 12월 24일(주일) 성탄전야 행사(찬양예배 시간)
- 12월 25일(월) 성탄절
05:00 성탄절 새벽기도회
09:00 성탄절 축하예배(1부, 가브리엘)
11:00 성탄절 축하예배(2부, 할렐루야)
- 12월 31일(주일) 교회학교 수료식
장로, 권사 은퇴식(찬양예배)
장로 안식년(찬양예배)
송년음악회(PM 10:00-11:00)

2007년

- 1월 1일(월) 송구영신 예배(0시 정각)
- 1월 3일(수)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 1월 7일(주) 신년감사예배(성찬식)
순결서약식(찬양예배)
- 1월8일(월)-13일(토) 청지기 수련회

겨울철 전열기 사용금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각 호실에서 개별적으로 커피 포트뿐만 아니라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누전 및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호실에서 사용 중인 모든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8층 식당(만나 홀)을 이용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금주의 성구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8-9)

The man who plants and the man who waters have one purpose, and each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his own labor.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1 Corinthians 3:8-9 [NIV])

김영주 집사(직전 스테반회 회장)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난 일년동안 스테반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스테반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여러 회원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스테반회 큰 행사인 수련회와 서울교회 섬김위원 친선 체육대회 등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섬기는 종으로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안에서 한 형제 재매뒀음을 확인하며 서로 섬기는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스테반 회원들이 함께하는 매주 수요일 2부에 배후 한티공원 노방전도도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주일 8층 만나홀을 비롯하여 봉사부서(실) 청소를 통해 교회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겨 섬김은 일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우리의 영(덕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헌신은 이미 하늘 상급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나 늘 돌아보고 더욱 신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집사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007년도 스테반회는 신임 회장과 임직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스테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지로 나아가며...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게 하소서

전광예 선교사(7국 파송)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의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이 나라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쪽의 먼 나라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학교들을 세워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시고 병원들을 허락하시어 아픈 자들을 치료케 하시며 마침내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동쪽 끝 한 톨이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복을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생명 구원의 도구로 쓰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고 맡겨주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쳐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살 길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모든 방언과 민족 가운데 구름 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족속 위에 방언 위에 임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천국시민 양성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최광성 집사(직전 전도위원회 간사)

전도위원회 간사의 직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충성을 다하겠노라 맹세를 하였지만 역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중 계획을 세우고, 매월 전도 위원 모임과 월례회를 통하여 전도하는 일에 목표를 두며,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자는 위원장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농촌전도대에서 안동 오치교회를 찾았을 때, 우상을 섬기던 많은 영혼들이 변화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간섭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로 정하여 선교회, 전도회가 앞장 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하면서 우리 서울교회를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천국시민 양성 - 청년부 신입회장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김지홍 성도 (청년부 신입회장)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청년부 회장이라는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은 나의 의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주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는 청년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나타내주는 모델이 되어서 주님은 높아지시며 나는 사라지므로 오직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2007년 청년부의 모토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아 오

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약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청년부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깊은 사랑과 인내가 있는 공동체로서의 청년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명을 주신분도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청년부를 향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권의책

내려놓음

한정연 성도 (청년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것을 내려놓으라!”**

진정 내려놓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저자는 우리가 온전히 빈 마음이 되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한 앞날의 방향과 계획,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 생명과 안전,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 죄와 판단의 집,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역의 열매 등을 내려놓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내려놓는 만큼 자유롭고 유연하며 풍요로운 삶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소유, 미래와 생명까지 모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는 만큼 그것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책임을 대신 저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를 위해 준비해두신 은혜와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에 이삭 대신 희생제물로 준비해두신 양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가려져 있으며, 선택한 계획에 따라 필요와 소망을 직접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것을 내려놓으라!

천국시민 양성 - Vision 2020

육군 제 706 특공연대 진중 세례식을 마치고

지난 달 육군 제 706 특공연대 새 생명 교회에서 서울교회 주관으로 84명의 장병들 진중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 2020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교회에서 2005년 12월 4일 군 선교사로 파송된 이경현 목사는 706 특공연대, 132 공병대대, 5,000-2 사격대까지 평소 장병들의 정훈교육, 인격교육과, 신앙상담을 통하여 장병들과의 친밀감과 이로 인한 부대 지휘관들과의 돈독한 유대로 전도의 문을 크게 넓혀가며 전도한 결과, 그 결실로 파송 1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84명의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여 진중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84명의 수



세 장병들이 군 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 날로 자라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병영 내 기독교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례식 때는 100명 그 이상의 진중 세례장병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기도 해 주신 성도님들과, 평소 이경현 선교사를 위한 기도팀 (팀장: 전희미 집사이) 수제자 100명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 해 주시고 이날 참석 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며,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리고 이항명, 손혜신, 전광혜 선교사님과 비전 2020 본부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Vision 2020 운동본부

대림절 (待臨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2천년전 아기로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원하면서 긴장과 절제, 그리고 설레임이 교차하는 계절이다.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기간 중 성도들은 내적 생활을 정돈하고 영혼을 정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마음속에 구세주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대림절의 색은 보라색으로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빛깔이다.

개교회에서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을 준비한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중 12월 둘째 주일은 말씀을 세상에 주신 날로 기념하여 전 세계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주일) OCU 창립 50주년 기념감사예배시 설교를 하며, 15일(금)에는 평남도민회에서 특강을 한다.

■ 개업 : 박우철 성도(2교구) 서울SIC치과 삼성동 COEX Mall S-7 T. 6002-2828
안진선 성도, 안지현성도(2교구), 카페-별(신사동536-17, 동 일빌딩1층)

■ 주간식당 봉사 : 베드로선교회(12월10일), 바울선교회(12월 17일)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년도 찬양대원,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을 축도록 축성하는 사역자들 되도록
2.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결심이 있기를
3. 서울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놓여준 미자립교회 위하여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